

초대의 글

21세기들어 전세계적으로 환경, 에너지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관련 핵심 기술 및 산업 분야에 화학공학 및 화학산업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즉, 21세기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고 지배하는 나라만이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화학공학의 역할이 새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학회에서는 “환경·에너지 그리고 화학산업의 미래전망”의 주제 하에 여름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심포지엄은 처음으로 국외인 일본 대마도에 서 열게 되었습니다. 대마도는 일본의 도서이지만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에 더 가까운 섬으로서 역사적으로도 많은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선사시대 이래 우리 조상들의 이동 경로 상 요충지이며, 이종무 장군의 정복지이며, 최익현 선생의 순국지입니다. 또한 자연 경관이 수려하며 해수욕, 트래킹, 낚시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우수하여 가족들이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심포지엄을 통해 화학공학의 새로운 역할과 전망에 대한 정보 교류의 기회와 아울러 가족과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회원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2008. 4.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김 화 용

“환경·에너지 그리고 화학산업의 미래전망”

- ★기 간: 2008년 7월 23일(수)~25일(금)
- ★장 소: 일본 대마도(이즈하라 국제교류센터)
- ★참 가 비: 등록비(500,000원)
- ★동반가족 참가비: 호텔 2인 1실 기준, 성인: 400,000원, 어린이: 350,000원
참가비에는 선박운임, 숙박비, 식비, 관광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단, 선택관광으로 낚시 선택시 별도요금 1인 30,000원 부과).
- ★환불규정: 참가비는 출발일 한달전까지 취소시 전액환불, 출발일 2주까지는 50% 수수료 공제, 출발일 2주이내 취소시 환불불가
- ★신청방법: 참가비 납입과 동시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으로 FAX 또는 E-mail로 신청
- ★납부방법: 361-25-0000-277 (국민은행)
230-035442-13-001 (우리은행)
예금주 : 한국화학공학회
- ★신청마감: 2008년 5월 9일(금)
- ★권장사항: 객실수가 한정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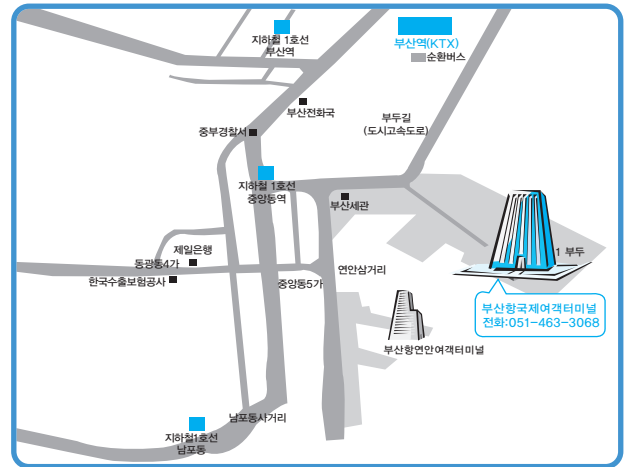
서단
법인 한국화학공학회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34-1
한국화학회관 5층
Tel: (02)458-3078~9 Fax: (02)458-3077
Homepage: www.kiche.or.kr
E-mail: kiche@kiche.or.kr

일본 대마도 오시는 길

집결장소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1층 대아고속해운 앞 집결
집결시간	2008년 7월 23일(수) 오전 9:00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약도



★서울에서 KTX 이용시

■열차시각(서울역 → 부산역)

- 서울역(05:25 출발) → 부산역(08:25 도착)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택시이용시 10분 이내)
 - 서울역(06:00 출발) → 부산역(08:53 도착)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택시이용시 10분 이내)
 - 서울역(06:25 출발) → 부산역(09:14 도착)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택시이용시 10분 이내)
- ※선박운행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열차시각(부산역 → 서울역)

- 부산역(19:30 출발) → 서울역(22:25 도착)
- 부산역(20:00 출발) → 서울역(23:02 도착)
- 부산역(20:40 출발) → 서울역(23:31 도착)

관광

대마도의 역사유적

- 조선통신사비: 쓰시마번은 임진왜란 후 조선과의 국교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약 200년간 12회에 걸쳐 통신사사절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다. 통신사의 방문으로 이루어진 활발한 교류와 우호관계를 21세기 한일우호의 지향점으로 삼고자 1992년 비를 세웠다.
- 최익현순국비: 구한말대유학자이자 구국항일투쟁의 상징인 최익현은 쓰시마에 유배되어 순국하였다. 장례는 백제의 비구니가지었다고 전해지는 슈젠지에서 치러졌으며 유해는 부산으로 이송되었다. 선생의 넋을 기리고자 1986년 한일양국의 유지들이 힘을 모아 슈젠지에 비를 세웠다.
- 만관교: 원래 쓰시마는 하나의 섬이었으나, 1900년 일본해군이 함대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섬의 가장 좁은 부분을 뚫어 인공해협을 만들었다. 이후 이곳에 다리를 세웠으며 현재 둘로 나뉘어진 쓰시마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 만조시의 조류는 여러 겹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 한국전망대: 쓰시마 최북단 와니우라의 한국전망대는 한국이 가장 가까이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까지 49.5km, 후쿠오카까지는 132km로 한국에 훨씬 가깝다. 날씨가 좋은 날은 부산시의 거리가 보이는 그야말로 국경의 섬임을 실감케하는 곳이다. 설계단계에서부터 한국학자에게 자문을 구하였으며 한국산 재료 구입 및 전문가 초빙 등 철저히 한국풍을 고집하였다.

동반자 관광안내

>>7월 23일(수)

한국전망대, 미우타하마 해수욕장, 와파즈미신사, 에보시다케 전망대, 만관교

선택 관광안내

>>7월 24일(목) 오후 자유일정

관광: 코모다 몽고군 내습지, 시이네의 이시아네, 쫄쫄짜기 전망대, 아유모도시 자연공원, 온천(수건 개별 준비)
 해수욕: 쓰시마그린파크해수욕장(수영복 개별 준비)
 등산/트래킹: 아리아케산(등산화 개별 준비)
 선상낚시: 낚시대 제공(1인 30,000원 별도 요금)

동반자 관광안내

>>7월 25일(금)

대마역사 민속자료관, 덕혜옹주 결혼기념비, 서산사, 최익현 선생 추모비

일정

7월 23일 (수)

>>진행: 총무이사 김우식 교수

- 09:00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집결
- 10:30 출국수속 및 부산항 출발
- 13:30 대마도 도착
- 15:30 등록
- 16:30 인사말씀
김화용 회장 (한국화학공학회)
- 17:00 대마도의 역사와 문화
박은경 교수 (동아대학교)
- 18:00 가족동반 만찬

7월 24일 (목)

>>진행: 조직이사 우종표 교수

- 10:00 환경·에너지산업과 미래 화학산업 전망
조진욱 회장 (한국 BASF)
- 11:00 기후변화 협약과 환경·에너지 기술정책 전망
김종남 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12:00 점심
- 13:30 자유일정
- 18:00 가족동반 만찬

7월 25일 (금)

>>진행: 조직이사 우종표 교수

- 10:00 화학공학의 환경·에너지 기술 전망에 대한 토론회
- 12:00 점심
- 15:00 대마도 출발
- 17:40 부산도착

숙박안내

쫄타야호텔, 만송각, 아나기야호텔 및 동급호텔 등 3곳의 호텔 이용 예정입니다.

2008 여름 특별 심포지엄 참가 신청서

작성일자 : 2008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연령	신청인		
			성명	연령	성명
소속	성명	연령	성명	연령	성명
전화	성명	연령	성명	연령	성명
핸드폰	성명	연령	성명	연령	성명
FAX	성명	연령	성명	연령	성명
E-mail	성명	연령	성명	연령	성명
납입금액	<input type="checkbox"/> 등록비 : 500,000원 <input type="checkbox"/> 동반가족 참가비 : 성인 400,000원 ()명, 어린이 : 350,000원 ()명	합계			
납입일자	2008년 월 일	납입은행			
숙박타입(2인 1실)	<input type="checkbox"/> 트윈 <input type="checkbox"/> 더블 <input type="checkbox"/> 화실(1실당 2~4명)	입금지명			

*호텔사정상 원하시는 숙박 타입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음.